

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

- 고용부, 「국가기술자격법」 개정안 입법예고 - - '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' 도입 근거 규정도 마련 -

문의 |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2-2110-7281

-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적인 활용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 - 또한, 지난 5월 '국민경제대책회의'에서 발표된 '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' 도입 추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채필)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 다고 밝혔다.
- 명의대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
 - 기간 일제 단속과 계도활동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활용 근절에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
 - 정부의 단속·계도와 병행하여 민간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.
- 한편, 지난 5월 도입 방향이 발표된 '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'는
 -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·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교육·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 대해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
 -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업현장의 '일'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인프라인 '국가기술자격 제도'와 일선의 '직업교육·훈련'이 상호 긴밀히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정부는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·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와 병행하여
 - 과정이수형 자격 시범적용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선정, 직업교육·훈련과정 평가기준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준비 작업도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- 고용노동부는 금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(안)을 확정하고,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금번 법 개정(안)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
 - 법 개정(안)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(직업능력평가과, 02-2110-7281/7278)로 제출하면 된다.
- 고용노동부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"지난 5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제도 도입 방향이 발표된 이후
 -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이 남발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이 저하될 것이라 고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"고 전하면서
 - "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,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-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'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'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확보'라는 제도 적 원칙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8월 1일자로 전기요금 평균 4.9% 인상

— 농어업용 및 전통시장 영세상인 전기요금 동결, 주택용 2% 인상 —

문의 |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장(02-2110-4661)

- 정부는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.9%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 - ◎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.1%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하였습니다.
-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방향은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,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.
 - ◎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와,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하였고
 - ◎ 주택용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%만 인상하였습니다.
 - ◎ 일반용은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.3% 소폭 조정하고, 특히 SSM으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
 - ◎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.3% 인상하였고,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은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.
 - ◎ 산업용은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.3%만 인상하고,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.3% 인상하였습니다.
-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소비성 전력과 소비 부문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해 전력낭비를 억제할 예정입니다.
 - ◎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키로 하였으며,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
-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서민지원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.
 - ◎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(2%~21.6%) 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 - ◎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하여,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
 - ◎ 정액감면 방식은 에너지 저소비 취약계층의 할인이율이 증가하고 과소비 계층의 할인이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향후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에 대해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
-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 - ◎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·산업용·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였고,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.

- ◎ 또한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시(季時)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고,
 - ◎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·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
- 전기요금에 인상되더라도 가정이나 기업에서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에너지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부문별로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
- ◎ 가정 부문에는 2천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여 저소득층·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용자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
 - ◎ 산업 부문은 전기요금 조정 여파를 흡수하고 에너지절약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
 - “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”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, 대·중소 동반감축을 위한 그린 크레딧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,
 -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금, 세제, 법률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 - ◎ 교육 부문은 교육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비용과 ESCO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그린 스쿨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.
-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
- ◎ 송·배전, 발전 부문 효율화 등 한전의 내부적 효율 증진을 통해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.
- 이번 요금 조정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계 총지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,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
- ◎ 향후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◆ 아름다운 명언

Success is achieved and maintained
by those who try, and keep trying,
for there is nothing to lose by trying
and a great deal to gain if successful.
By all means TRY ! Do it NOW !!!

— W. 클레멘트 스톤 —

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지만이
성공을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한다.
시도해본다고 잃을 것은 없으며,
성공하면 커다란 수확은 얻게 된다.
그러니 일단 해보라!
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!!!

우리나라의 관문, 인천 앞바다에 토종 풍력단지 우뚝서다

- 인천 영흥 국산풍력 상용화단지 준공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(02-2110-4911)

- '11. 7. 20(수), 인천 영흥화력발전소(남동발전 운영)내에 국산풍력 상용화단지(22mw)가 준공되었다.
 - ◎ 영흥풍력 상용화단지는 국산풍력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산풍력 신뢰도 검증 및 운영실적(Track Record)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식경제부(장관 최중경)의 판단 아래 총사업비 560억원(정부 지원 150억원)이 투입되어 건설되었다.
 - ◎ 영흥풍력 상용화단지 조성에는 두산중공업, 삼성중공업, 유니슨 등 풍력발전기 제작업체 그리고 전력연구원, 에너지기술연구원, 기계연구원 등 국내의 대표적인 풍력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하였다.
- 세계 풍력시장이 최근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20~30%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, 2015년 이후에는 반도체, 조선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경제의 핵심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.
 - ◎ 이러한 신성장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 국내 조선 및 중공업 업체를 중심으로 국산풍력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며, 국제인증 취득,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 - ◎ 정부는 세계시장 진입에 필수적인 신뢰성 검증 및 운영실적(Track Record)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하고 운영이 용이한 화력발전소 유휴부지에 국산풍력 실증단지(Test Bed)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고, 국내 40여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통하여 영흥화력을 최적으로 선정(2008년)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.
 - ◎ 상용화단지에는 유니슨(2MW x 3기), 삼성중공업(2.5MW x 4기), 두산중공업(3MW x 2기) 등 총 9대의 풍력발전기 22mw가 설치됨으로써 12,000가구에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고 연간 3천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하게 된다.
- 지식경제부는 영흥 국산풍력 상용화단지를 주춧돌로 삼아 국산 풍력발전기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
 - ◎ 영흥발전소에 30mw급 풍력단지를 추가로 건설하고, 후속단지를 발굴하여 개발할 계획임
 - ◎ 영흥풍력 상용화단지는 '10대 그린 프로젝트'의 하나인 'Green Power'(발전소내 신재생에너지 보급)이며,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후속단지를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임